

2023년 캄보디아 주간(7.29-8.4) 경제 동향

[경제/사회]

■ 찌어 세레이 NBC 부총재, 총재로 임명

- 올해 3월 중앙은행(NBC) 부총재에 취임한 찌어 세레이(Chea Serey) 부총재는 부친(父親)인 찌어 찐또(Chea Chanto) 총재에 이어 7.29(토) 칙령을 통해 NBC 총재에 공식 임명됨.
 - 찌어 세레이 신임 총재는 올해 4월 부총재 취임 관련 Japan Up Close와의 인터뷰에서 ‘금융 포용 추진’에 대해 강조했으며, 관계자들은 찌어 세레이 총재가 NBC의 Bakong 시스템과 차세대 블록체인 기반 결제 솔루션을 주도했다고 평가함.
(Phnom Penh Post 7/31, 1면)(Khmer Times 13면)

■ 캄보디아 리엘화, 싱가포르 공항에서 환전 가능

- 찌어 세레이(Chea Serey) 중앙은행(NBC) 총재는 SNS(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싱가포르의 Changi 공항 내 환전소(Travellex)에서 싱가포르 달러, 미국 달러, 호주 달러, 유로화, 일본 엔화 등의 외화와 캄보디아 리엘화의 환전이 가능해졌다고 밝힘.
 - 캄보디아 중앙은행(NBC)과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7.11 양국 중소기업의 국경 무역 및 금융서비스를 원활히 하기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금융투명성회랑(FTC)의 공동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
(Khmer Times 8/1, 1면)

■ ‘의류·신발·여행용품’ 수출 감소로 인한 실업 증가

- 캄 노동직업훈련부(MLVT)는 7.31(월)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른 ‘의류·신발·여행용품(GFT)’ 부문의 수출 감소로 15개 공장 약 7,600명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밝히고, 이들 실업근로자들은 재취업시까지 정부의 재정지원(20-40\$)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함.
 - 최근 몇 달간 이어지고 있는 GFT 부문의 수출 둔화로 인해 다수의 공장이 폐쇄되고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보고됨.
 - 관세청의 집계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GFT 부문 수출액은 51.9억 달러로 작년 동기(63.7억\$) 대비 18.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Khmer Times 8/1, 15면)

■ 캄보디아, 2026년 제39차 세계걸스카우트 컨퍼런스 유치 성공

- 캄보디아 걸스카우트 협회(GGAC)는 7.31(월) 훈 마넛 총리 내정자의 배우자인 뱃 찐모니(Pich Chanmony) GGAC 총재가 7.26-31간 Syprus에서 개최된 제38차 세계 걸스카우트 협회(WAGGGS) 컨퍼런스에 캄보디아 대표단과 함께 참석하였으며, 2026년 개최예정인 제39차 WAGGGS 컨퍼런스**의 시애틀 유치를 이끌어 냈다고 발표하고,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은 캄보디아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밝힘.
 - 훈 마넛 총리 내정자는 “아내(뱃 찐모니 GGAC 총재)와 워킹그룹의 노력이 만들어낸 훌륭한 성과에 존경을 표한다”고 말함.
(Phnom Penh Post 8/2, 1면, Khmer Times 3면)

■ 중앙은행, “은행 예금·대출로 글로벌 위기에 대처”

- 캄 중앙은행(NBC)이 7.31(월) 발표한 상반기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금융부문의 예금액은 444억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6.4% 증가, 대출액은 586억 달러로 13.8% 증가함.
 - 미결제 대출금*은 총 160만개 계좌 458억 달러로 11.9% 증가
 - * (부문별 대출 비율) 소매: 작년 동기 대비 12.9% 증가한 16% 차지, 주택 소유 14.5%, 부동산 9.5%, 도매 9.3%, 건설 9%, 소비자 8.3%, 농수산업 8%, 제조업 4.3%, 호텔·레스토랑 4.2%

- 6월 말 기준 소액금융대출액은 총 97억 달러로 작년 대비 14.8% 증가. 이중 가계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34%로 작년 대비 18.4% 증가
- 짜어 찔또 NBC 前총재는 연설(7.31)에서 “글로벌 금융 여건이 좋지 못하고 올해 초 미국 은행 3곳이 도산하면서 국제 금융 시장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캄보디아의 은행 시스템은 여전히 강력하고 탄력적”이라고 하고, “자본과 유동성이 NBC의 규제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부실채권 비율이 소폭 증가했으나 금융 안정성에 위협을 초래하지는 않는 수준”이라고 설명
- 보고서에서 NBC와 통화 당국은 USD의 지급준비금을 팬데믹 이전 7%에서 2023년 1월 1일 이후 9%로 인상, 2024년 12.5%로 인상 예정이며, 한편 소비자들의 리엘화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리엘화 준비금 요건은 7%를 유지한다고 밝힘.
(Phnom Penh Post 8/2, 1면)(Khmer Times 8/2, 1면)

■ 디지털 결제 작년 동기 대비 98% 증가

- 캄 중앙은행(NBC)은 모바일 결제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등록된 전자지갑 계정의 수가 6월 말 기준 약 2,020만 개라고 밝힘.
 - 전체 거래 건수는 2022년 2억 1,120만 건에서 3억 3,370만 건으로 증가, 총 거래금액은 약 582억 달러로 작년 대비 98.3% 증가함.
 - NBC는 올해 6월까지 35개의 결제서비스기관(PSIs)이 라이선스를 받았고 2개의 은행 및 금융기관(BFIs)이 결제사업 운영 권한을 취득했다고 밝힘.
(Khmer Times 8/2, 13면)

■ 2024년도 근로자 최저임금협상 8.16 시작

- 캄 노동부는 8.16(수) 노·사·정이 참여하는 2024년도 근로자 최저임금협상을 시작한다고 발표함.
 - 2023년도 봉제근로자 최저임금은 200달러(*2022년 194달러)
(Khmer Times 8/2, 6면)

■ 7,500여 가구 홍수 피해

- 캄보디아 국가재난관리위원회(NCDM)의 보고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홍수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7,587가구가 가옥과 논밭이 침수되고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음.
(Khmer Times 8/2, 7면)

■ 온 쁘모니로앗 장관, “7대 내각, ‘5각 전략’ 1단계 시행”-

- 온 쁘모니로앗 경제재무부(MEF) 장관은 8.1(화) 싱가포르 기업들(23개)과의 비즈니스 협력 잠재력 모색을 위한 ‘싱가포르 비즈니스 연맹’ 대표단과의 만남에서 “신정부에서는 경제발전의 7대 핵심 분야에 중점을 둔 ‘5각 전략(Pentagon Strategy)’의 1단계를 시행할 것이며, 이를 통해 2030년 중고소득국 진입, 2050년 고소득국 진입이라는 목표 달성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힘. (출처: MEF 보도자료(8.2))
 - 또한 이를 위해 정부는 △거버넌스 강화 △제도적 역량 강화 △사회경제 발전에 유리한 환경 조성 △인적자원 개발 △경제의 다양화 및 경쟁력 강화 △민간 및 노동 개발 △회복성 있는 개발 △지속가능성과 포용성을 갖춘 개발 △디지털 경제와 사회의 발전 등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
 - 한편, 경제성장률은 올해 5.6%, 2024년 6.6%, 인플레이션은 올해와 2024년 모두 2.5%로 예측하고, 환율과 외환보유고는 안정적인 것이라고 언급하는 한편, 농업, 관광 및 비의류 부문의 잠재력에 대해 강조
(Khmer Times 8/3, 13면)

■ 상반기 전기·전자 제품 수출 14억 달러

- 캄 중앙은행(NBC)의 보고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캄보디아는 작년 동기 대비 1.3 배 증가한 14 억 달러 상당의 전기 장비 및 전자 부품을 수출함.
 - 보고서는 ‘의류 제품, 자전거, 고무 제품 수출은 감소한 반면 전기·전자 제품의 수출은 작년 대비 1.3 배 증가했다’고 밝힘.
 - Heng Sokkung 산업과학기술혁신부 차관은 “ ‘ 2015-2025 캄보디아산업발전정책’을 기반으로 생산체인에 대한 기술 투자가 증가함으로써, 지난 2 년간 비의류 제조업 부문의 수출이 크게 증가해 의류 부문의 수출 증가를 앞질렀다고 말함.
- (Khmer Times 8/3, 13 면)

■ 상반기 외환보유고 184 억 달러

- 캄 중앙은행(NBC)의 ‘ 2023 년 상반기 금융보고서’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캄보디아의 외환보유고*는 작년 동기의 178 억 달러 대비 3.2% 증가한 184 억 달러임.
 - * 2019 년 188 억\$, 2020 년 213 억\$, 2021 년 203 억\$
 - 또한, NBC 는 중국, 한국, 일본, 유럽의 주요 국제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녹색채권(Green Bond)과 환경(E)·사회(S)·지배구조(G) 개선 관련 ESG 채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함.
- (Khmer Times 8/3, 1 면)(Phnom Penh Post 1 면)

■ 캄 상무부, 미국에 GSP 갱신 요청

- 뺀 소라삭 상무 장관은 8.2(수) Jason Smith 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美 하원 세입위원회와의 회의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하면서, 의류, 신발, 여행용품 등 일부 캄보디아산 제품들에 대한 미국의 대캄 GSP(일반특혜관세제도)*를 갱신해 줄 것을 촉구하고 미국 기업들의 대캄 투자 확대를 요청함.(출처: 상무부 보도자료 8/3)
 - * 미국의 대캄 GSP 는 2020 년 12 월에 종료
 - ※ 미국은 캄보디아의 최대 의류, 여행상품, 신발 제품 구매국이며 작년 1-11 월간 캄보디아의 대미 무역흑자는 전년 동기(64 억 달러) 대비 24.35% 증가한 79 억 달러 기록(동기간 총 수출액 205 억 달러 중 40.2% 점유)
- (Khmer Times 8/4, 13 면)(Phnom Penh Post 8/4, 1 면)

■ 프놈펜시 제 3 순환도로 개통

- 훈센 총리와 Wan Wentian 중국 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8.3(목) 중국 정부의 차관 2.6 억 달러 포함 총 공사비 4.6 억 달러* 규모의 프놈펜시 제 3 순환도로 개통식이 개최됨.
 - ※ 총 길이 : 52.98km, 프놈펜시 4 번 국도 근처 Win-Win 기념탑 교차로에서 시작하여 꺾달주 Kien Svay 지역 1 번 국도 구간을 연결. 총 공기 : 4 년 4 개월. 건설사 Shanghai Construction Group(SCG)
 - 쏘 쩐틀 장관은 ”프놈펜시와 꺾달주를 연결함으로써 물품 운송을 가속화하고 이동을 원활하게 하며, 교통 혼잡을 완화하여 교통사고를 줄임으로써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함.
- (Phnom Penh Post 8/4, 3 면)(Khmer Times 1 면)